

“클래식 작품 번호 몰라도 그저 느끼면 돼”

광주문예회관 음악회 진행 아나운서 이상협

마지막주 수요일 '11시 음악산책' 맡아
27일 두번째 공연 윤한 '그대를 그리다'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DJ
2010년 가수 데뷔, 2012년 시인 등단
낭독·기타 연주 음반, 에세이도 준비중



올 한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11시 음악산책'의 사회자로 나선 KBS 이상협 아나운서.

이야기와 연주가 함께하는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첫 무대 '유영욱의 베토베니즘'이 지난달 29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이 열린 문예회관 소극장 관객석은 비어있었지만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 음향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 고요함 속 긴장감이 느껴졌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키자 이상협 아나운서의 차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유영욱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비창', '월광' 등은 공연장을 넘어 카메라를 통해 유튜브 채널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이씨는 공연 중간중간 곡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함께 유씨와 대화를 이끌었고 유튜브 채널 채팅창을 살피며 관객들의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다.

KBS 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매일 밤10시-12시) DJ를 맡고 있는 이상협 아나운서가 올 한해동안 '11시 음악산책'의 사회자로 나선다. '11시 음악산책'은 매회 색다른 주제와 선곡으로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장르 감상의 길잡이가 되어 줄 문예회관의 기획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열린다. 이씨는 한 달에 한번 광주를 찾아 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음악가의 삶과 음악세계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나고 문예회관 대극장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이씨를 만났다. 그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 대해 "무관중 공연인데다 생중계로 바로 송출되는 점에서 청취자가 특정되지 않는 매력이었다"며 "그런 부분이라 디오와 공통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연주된 베토벤의 '월광'에 대해 흔히 들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곡이지만 악보를 보거나 실제 연주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정말 어려

운 작품입니다. 이렇게 귀에는 익숙한 곡이라도 '클래식' 하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알레그로 등의 용어를 비롯해 작품번호가 몇번인지, 몇악장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저 뚫으로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나운서이자, 시인이고, 가수이기도 하다. '역사저널, 그날', '다큐 3일', '명견만리' 등의 내레이터로 활약했고 2018년 5월부터 '당신의 밤과 음악'의 진행 맡고 있는 그는 1997년 '제9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푸른 새'로 동상을 수상했다. 2010년 음반 '에고트립'을 내면서 가수로 데뷔했고 2002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2012년에는 시인으로 등단했다.

라디오 방송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덕분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종합예술인이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우면서 음악을 시작했고 2학년이 되고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 나가 상을 타면서 "나는 음악을 해야지" 생각했다.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는 음악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반을 냈어요. 그러다 회사가 파업에 들어가자 시를 쓰기 시작했죠. 안중은 마음을 풀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를 쓰지는 오래됐는데 게으른 탓에 2년 전 첫 시집을 냈습니다."

월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시 '너머' 등 5편으로 현대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받은 그는 2018년 첫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민음사)'을 발간했다.

그는 비교적 자기 시간이 많은 직업을 가진 덕분에 주로 사무실에서 짬을 내 시를 쓴다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문장이 찾아오고 그 문장이 다음 문장을 만들고 그것이 내용이 되기도 하고 문장 자체로 남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막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이 '자! 이제 시를 써야지. 주제는 뭐?' 이게 아니거든요. '시를 받는다', '시마가 찾아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삶에서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고, 대신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그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메모를 하고 쓰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트북으로 시를 쓰다보면 이해안되는 부분도 종이로 프린트 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시 한편 쓰면 100번정도 빨아서 봅니다."

지난해에는 산문집 '내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줄래'를 출간했다. 20여년 동안 체험한 낭독의 세계를 쉽고 진지하면서 때론 유머러스하게 풀었다.

이씨는 "낭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 묘한 책이다"며 "일반인들이 쉽게 낭독을 접할 수 있도록 낭독이 주는 즐거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10년 첫 음반 'Shanty Boogie' 발매에 이어 'Viva La Musica' (2012), 'Egotrip' (2018)을 제작했고 2018년 가을에는 박은영 아나운서가 부른 '여의도엘레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씨는 그동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에피소드, 음악관련 이야기 등을 담은 에세이를 준비 중이다. 제목은 '라디오에이즈'. 또 기타 연주곡을 담은 음반도 낼 예정이다.

"음반을 언제 낼지 확실한 기약은 없지만 왠지 내야만 할 것 같아요. (웃음) 음악에 가까운 낭독을 담은 낭독을 담은 음반도 낼 생각이구요. 아, 그리고 다음번 광주에 올 때는 하룻밤 자고 갈 계획이에요. 5·18 민주묘지 등 광주 곳곳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한편,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두번째 순서인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또 문예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KBS 이상협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첫 공연 '유영욱의 베토베니즘'이 지난달 29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지역작가 작품 한점 구입해볼까

26~31일 소촌아트팩토리 큐브갤러리서 아트마켓

광산구 코로나19 극복 행사
38명의 작가 160여점 내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아트마켓이 열린다. 광주시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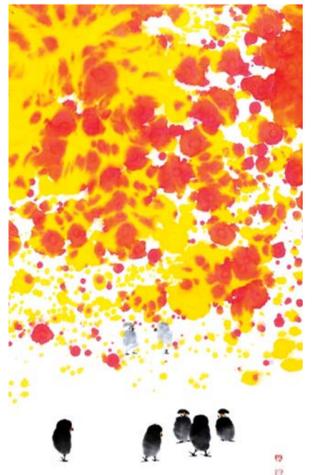
오는 26~31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갤러리(광주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서 열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연대 프로젝트 '광산아트마켓-다시, 봄'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8명의 작가가 모두 160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광산아트마켓은 예술품동조합(대표 오창록)이 주관하고 광산구기업추진의 센터, 광산경제혁신회의가 함께한다.

아트마켓은 3부로 구성돼 있다. 중견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전 '다시, 봄'에는 박구환·정상삼·김효삼·송필용·박태후·이호국·최요안·한부철·한희원 등 17명이 다양한 작품을 내놓았다.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푸른빛, 靑' 전에는 노여운·박성완·서영실·설박·성유진·성혜림·이인성·양나희·염기준·임현채·하루K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여성 작가전 'Reborn'에는 김경아·윤지선·이은영·정향은·한은혜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작들은 10호 이하 100만원 이하로 구성했으며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30만원 균일가전도 마련했다.

광산아트마켓에서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 일부는 광산경제혁신 펀딩에 기부될 예정이다. 전시 시작은 26일 오후 4시이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태후 작 '자연 속으로'



이인성 작 '또 다른 도전'



송필용 작 '별해는 밤'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면회장(180명), 소면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